

# 주는 마음 '깨끗' 받는 마음 '청정'

## 불교계 반발 이유

- ① 왜 불교계의 시주만 문제되나
- ② 정당한 종교행위가 법의 심판대상?
- ③ 사회자원교류의 왜곡된 시각

### ●시주의 형태와 관례

전북 고창의 도솔암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최근 극락보전 건립봉사를 마쳤다. 도와 시에서 일부 재정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신도들의 시주금이 큰 힘이 됐다. 하지만 거의 모두 몇 만원에서 몇 십 만원이었고, 거액의 시주는 없었다. 고정 신자가 없다보니 이들 시주는 모두 말 그대로 '마음'을 낸 무주상 보시였다.

팔공산 파계사는 최근 법당낙성법회를 봉행하고 시주자 명단과 금액을 공개했다. 천만원대의 시주는 1%에 불과할 뿐, 신도들 모두가 십사일반으로 모였다.

대형봉사의 경우 유력 기업(기업인)의 시주로 이루어진 사례도 없지 않다. 한진그룹 고 조중훈 회장이나 건설회사인 건영,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 등은 불교나 사찰과의 인연으로 대공덕주가 되기도 했다.

시주는 스님들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것이다. 물론 크고 작은 불사에 적지 않은 금액이나 부동산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사찰이 신도들에게 시주를 직접 권유하거나 신도들이 명망있는 불자들에게 시주를 권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 즉 대가를 바라고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시주의 종류는 과거와 달리 다양해졌다. 주로 사찰운영이나 제례, 건축봉사 위주였던 것이 초하루, 신중기도, 약사기도, 지장기도, 관음기도, 인당기도 등으로 늘었다.

시주는 조선시대 승유역불정책으로 사찰 토지가 몰수당해 삼보장재가 축소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불교가 국교로 인정됐던 신라나 고려 시대에는 국가에서 사찰 재정을 부담해주었고, 불사도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다른 종교단체 사례

개신교와 천주교의 헌금은 규모나 종류에서 불교의 시주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개신교의 경우는 십일조(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내는 헌금을 비롯해 주일헌금, 감사헌금(생일, 이사, 승진, 출산 등 특별한 일이 생길 때 내는 헌금), 월기헌금(주수감 사절 등 절기마다 내는 헌금) 등 종류만도 40여종이 넘는다. 여기에 건축헌금이나 선교헌금 등 특정한 목적을 갖는 헌금까지 합하면 거의 1년 내내 헌금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헌금은 십일조다.

천주교에서는 신자들이 스스로 헌금액을 정해 일년에 한 번씩 내는 교무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

## 시주금, 어째서 뇌물인가?

한 고위 공직자의 권유와 그에 따른 대기업의 시주. 이남기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재임기간 중 시주를 권하고 SK측이 10억원을 서울 북한산 승가사에 시주한 것에 대해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 1심 선고공판이 1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림에 따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석탑을 건립하기 위해 시주금을 받았다가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김태복 장군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재조사를 지시한 일도 있다.

두 사건 모두 '시주금'이나 '뇌물'이라는 용어와 '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를 두고 불교계는 "시주금을 뇌물로 둔갑시켰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주라는 종교적 행위법을 범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에 각 지역 교구와 성당 운영비로 쓰이는 '1차 헌금'과 사회복지주일, 성서주일, 교향주일, 군인주일, 정교주일, 평신주일 등 특정한 주일에 내는 '2차 헌금'이 있다.

개신교나 천주교의 헌금은 종류나 모금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관리는 차이가 있다. 천주교는 개별 성당에서 모은 헌금을 교구회에서 관리하며, 헌금내역이 모두 공개된다. 반면 개신교는 헌금을 공시 회계처리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교와 마찬가지로 공개하는 교회도 있지만 천주교와 같이 교구 차원에서의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국회신학대학원대학교 성기문 교수는 "교회의 헌금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세금공제를 위

교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또 하나, 과연 시주와 같은 종교행위가 법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점이다. 설혹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순수한 종교적 신념'에서인지 '대가' 때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가 사회문제로 비화된 전례가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유는 사회의 자원교류가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경직된 사고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단체들은 이를 물질만능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분석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종교적, 정서적 만족을 위해 자원교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법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김태복, 이남기치 사건이 빚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시주금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고스님은 또 "사회적 공적 자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며, 기부가 바로 이런 부족함을 메워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종교단체 기부에 대해 검찰이 얼마든지 손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종교의 자율성은 물론 기부문화의 저변도 크게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 ●시주문화 재정립해야

불문 시주문화 개선도 필요하다. 먼저 '큰 시주'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한 목적(성당건립 등)에 신도들이 일정한 금액을 공동 모금하는 방식이나, 마자회 등 수익사업을 통한 기금 확보, 장기간에 걸친 모금 등 천주교의 헌금 방식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시주금 관리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시주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명백히 밝히고,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관리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사찰회계, 처리, 금융사고 보완책 등 재정과 관련한 전반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사찰예산회계법'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앙승가대 김용철 교수는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대만 자제공덕회를 예로 들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 교수는 "투명성이 확보돼야만 신도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신도들이 시주에 참여하게 되며, 그래야만 올바른 시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15%에 불과했던 싱가포르의 불교인구가 25%로 늘어난 것은 사회복지 등을 통해 시주금을 사회로 환원했기 때문이며, 우리 불교도 이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김석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기획운영국장



### 어린이 포교는 미래불교의 희망

## 어린불자 줄면 불교미래 암담

## 지도자 양성·시설 증설 서둘렀으면

6월 20일 밝은 시간 봉사사 보수 당. 나무를 만드는 사람, 나뭇잎을 만들어 붙이는 사람, 글자를 만들고 붙이는 사람, 조명을 설치하는 사람 등 정신이 없다.

'선영아 빨리 어린이 캐릭터 몸통 주라.' '정윤이는 스님을 불어라.' '효주 스님 캐릭터 아직 안 되었어요?' '혜주와 장영이는 스티로폼에 푸른 칠을 해서 강들을 만들어라.'

10여명의 지도자들이 제31회 여름 불교학교 지도자를 위한 강습회 준비로 새벽 1시가 되어 가는 시간까지 강 의장 무대를 꾸미며 행사준비 만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란 슬로건으로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서 이 땅에 부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1985년도에 창립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불레협)회원들이다. 이 단체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불교는 정(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에서 벗어나 발상 전환을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는 동(動)적인 레크리에이션을 가미하여 불교를 포교하는 단체이다. 일년에 두 번 실시하는 강습회와 수련캠프, 전문지도자과정, 그리고 수요 정기 강좌, 연등축제 운동 시연, 위문 활동 등 바쁜 일정을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

넓으신 부처님 진리의 그늘 아래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 부처님 진리를 즐겁게 실천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건만 어린이법회에 어린이가 줄어들고 있는

현황이다. 어린이 포교,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행에 열중하고 있는 불레협의 회원들의 모습을 보며 포교단체들이 하나같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포교의 지속성을 위한 경제적 뒷받침이 부재하다. 또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의 부족함 그리고 교육장소의 확보를 빠른 시간에 보완하여야 함을 느꼈다.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보다 많이 전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도자 양성을 언제나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구하고 실천하는 불레협 회원들의 땀 흘리는 모습은 미래 불교의 발전을 내다보는 것 같다.

법회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 교사가 부족하고, 지도 교사들이 사용할 여러 가지의 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진실한 전법자의 모습이다.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준비와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의 불교를 위한 진지한 모습은 강습회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종단에서 여러 계층별로 포교에 열을 쏟고 있지만, 다른 포교보다도 어린이 포교는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어의 회귀 분봉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 시절에 심신에 배어있는 불교의 향기는 청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은은하게 퍼져서 나올 것이다. 종교심은 어린이 시절부터 무엇으로 가꾸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이다.

부처님 진리와 사찰과 스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어린이 시절부터 각인되어 있으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불자로서 행동이 이루어 질 것이다.

어린이 포교,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행에 열중하고 있는 불레협의 회원들의 모습을 보며 포교단체들이 하나같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포교의 지속성을 위한 경제적 뒷받침이 부재하다. 또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의 부족함 그리고 교육장소의 확보를 빠른 시간에 보완하여야 함을 느꼈다.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보다 많이 전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도자 양성을 언제나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 사찰운영 · 각종 불사 위한 순수한 기부

### 법회와 기도따라 종류 다양... 자율 동참 원칙

### 타종교의 헌금 불교와 비교 않될 정도로 활발

## 투명한 관리 · 복지로 환원 노력 서둘 때

한 영수증 발급 시 헌금 액수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흔하지는 않다"며 "하지만 헌금이 뇌물로 변질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천주교 주교회의의 한 관계자는 "헌금내역이 공개되기 때문에 비리는 거의 없다"며 "성당을 짓기 위해 헌금 모금을 할 때도 특정신자가 거액을 기부토록 권유하기 보다는 신자들이 일정한 금액을 공동 모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무엇이 문제인가

불교계가 시주금에 대한 '법의 심판'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왜 하필 시주금만 사비냐'는 것이다. 개신교나 천주교의 헌금이 불교의 시주금과 마찬가지로 종교행위이고, 모금 방식이나 목적도 다를 게 없는 데 유독 시주금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힘없는 불

## 제4회 창작찬불가 공모대회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창조적인 계승과 조화를 바탕으로 불교음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찬불가의 질적 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한 포교사업 일환으로 창작찬불가에 대한 의욕과 불교음악인의 발굴기회를 갖고 민족정서 및 불교정서에 맞는 수준 높은 찬불가를 보급하고자 제4회 창작찬불가를 공모함.

### 공 모 요 강

#### 1. 공모부분

- (1) 일반공모(작사/작곡 포함) ● 합창곡(7분 내외) ● 중창곡(5분 내외) ● 독창곡(5분 내외)
- (2) 작곡공모(작곡) - 가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시 가능함.

#### 2. 응모자격 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신청서 교부 2003년 5월 19일 ~ 2003년 10월 6일
- 신청서 접수 2003년 9월 15일 ~ 2003년 10월 6일

#### 4. 심사발표 2003년 10월 15일 (종단홈페이지, 교계신문, 개별통보)

#### 5. 운영 및 심사위원 불교음악 및 각계 권위자로 구성

- 6. 시상내역 ● 대 상 1인 (상금300만원, 상패) ● 우수상 1인 (상금100만원, 상패)
- 장려상 2인(상금50만원, 상패) ● 아름다운노랫말상 1인(상금50만원, 상패)
- 입선 5인(상패)

#### 7. 응모요령

- 응모신청서 작성합니다.(가사 및 곡 해설 필히 기입, 사진3매 제출)
- 작품은 악보(1부), 복사본(5부), 작품 녹음테이프(피아노반주)를 제출합니다.
- 작품 속에는 작사, 작곡자의 성명을 비롯한 악보 외의 표식을 금합니다.
- 응모신청서는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각 교구본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서 배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021739-1830 Fax 021722-2606

## 육법등(六法燈)



###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용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영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등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 031)541-1417 / 팩스 : 031)541-1419

중판 및 대리점 모집